

영어 복수 표현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종합적 고찰*

김 정 우
(경남대)

1. 머리말

본고는 영어 원문의 복수 명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와 한국어에서 복수를 표시하는 개괄적 원리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복수 번역규칙의 제안이다.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사물 혹은 대상이 하나일 때 단수로 취급하고 둘 이상일 때 복수로 취급하면 언어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언어에 따라서는 이런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질서가 필수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사물이 하나이면 단수로 취급되고¹⁾ 사물이 둘 이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A2A0109530).

1) 일반적으로 많은 언어에서 무표(unmarked)로 실현된다.

상이면 복수 표지를 받는 이른바 대상-표지 대응원리는 범어적으로 적용되는 보편 원리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언어학적 분석 결과가 실제 영-한 번역의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자료 기반의 확인 작업이다. 다른 학문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지만, 번역학은 특히 번역 현장 내지 번역 실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번역학 이론과 실무번역 현장의 선순환 관계는, 우선적으로 번역학 이론을 개발하는 연구자가 항상 번역 현장의 번역자를 염두에 두어야 바람직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본고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연구의 결론으로 도출된 이론(복수 번역규칙)을 실제 영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 작업 결과에 적용해서 그 효용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²⁾

영어 복수 표현의 한국어 번역 문제는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주제이지만, 번역학계에서는 그다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2장의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본고와 관련한 주제를 다룬 논문이 6편에 불과한 것이 저간의 사정을 잘 대변해준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번역학의 연구 전통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독자적인 번역학 연구의 역사가 아직 일천하다 보니, 번역학 연구자들은 보다 큰 주제, 예컨대 번역 교육 전반이나 번역 일반이론, 번역 모형 등의 문제를 천착하느라 우리의 주제와 같은 미시적인 문제까지는 미처 분석의 눈길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번역학과 관련된 거시적 일반이론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진척되고 나면,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주제를 다룬 유용한 연구 결과의 산출도 가능해질 것이다.³⁾

이밖에 학계의 연구자들과 현장의 번역자들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2) 이론과 실무 현장 간의 적극적 화해는 번역학에서 중요한 화두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의연(2012: 277)의 다음 지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러한 번역 전략이 가지는 내부의 문제는 그 번역전략이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 사람명사의 단수와 복수 표현에 대한 특정 언어학 이론 중심의 빛나간 가정의 토대 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밑줄 필자)

3) 우리의 주제와 연관된 한국어 복수 문제의 본질이라든가 영어의 복수 표지 문제 등에 대해 일반언어학과 국어학 분야에서 축적된 업적은 상당한 분량에 이른다. 이들 업적도 복수 범주의 영-한 번역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미흡한 것도 그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우리의 연구 현실에서 자연과학 분야와는 달리 번역학을 포함한 인문과학 분야에서는 아직 산학협력이나 공동연구 등의 협업 전통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번역학 연구자들이 공들여 내놓은 연구의 결과가 번역 현장에서 번역물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번역자들이 힘들여 산출한 번역 결과물 역시 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연구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향적 극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선행 연구

번역학에서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축적된 업적은 앞서 말했듯이 조숙희(2007), 곽은주·진실로(2009, 2011), 곽은주·김세정(2011), 김만수(2010), 조의연(2012) 등 6건에 불과하다. 이들 논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숙희(2007)는 영어의 복수 명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실제 자료를 활용해서 계량적으로 확인한 최초의 논의로, 대조문법 수준의 이론적 연구를 한 단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 복수 명사의 한국어 번역 과정에 해당 명사의 유정성 여부가 관여한다는 점을 밝혀내서, 이를 목표언어 독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번역자의 전략으로 해석했다는 것은 목표언어인 한국어의 특성이 복수 명사의 번역에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점을 적확히 파악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유정성이라는 의미론의 자질이 복수표지의 출현이라는 형태론(혹은 통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격조사 ‘-에’와 ‘-에게’가 상보적으로 출현하는 다음 예문 (1)에서 보듯이 한국어 문법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명사의 유정성과 복수표지의 출현 사이에 존재하는 문법적 의미, 즉 유정성이라는 의미자질이 복수표지라는 형태(통사)자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본질적 의문에 대한 탐색이다.

(1a) 영이가 화초에 물을 주었다. → 명사([-animate]) - 여격조사 ‘-에’

(1b) 영이가 동생에게 물을 주었다. → 명사([+animate]) - 여격조사 ‘-에게’

조숙희(2007)에서 언급된 유정성 자질은 앞으로 우리의 논의 전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도출된 결론이 일정한 규칙이나 원리의 제안에 이르지 못하고 일종의 경향 제시 정도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영어 원문의 유정체 명사가 대체로 한국어 번역에서 복수표지의 출현에 민감하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 해당 명사가 왜 복수표지를 받았는가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미흡해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편을 읽어보아도 조숙희(2007)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결국 숙련된 번역자 개인의 언어감각으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곽은주·진실로(2009)는 영어와 한국어의 수량어구 표현을 비교하여 각각의 표현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우리의 주제인 복수명사의 영-한 번역 문제에 대해서는 목표언어인 한국어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수량어구를 번역할 때 선행구성과 후행구성을 각각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다소 일반론적인 진술에 머무른 아쉬움이 있다.

곽은주·진실로(2011)에서는 한국어에서 복수표지 ‘-들’이 복수성과 배분을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사람 명사만이 가산명사라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번역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사람 명사는 자유롭게 ‘-들’을 사용하고 그 이외의 명사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사람 이외의 명사는 복수표지를 갖는 형태가 유표이다. 둘째, 사람 이외의 명사는 텍스트상에서 전체의 의미일 때와 개체의 의미일 때를 나누어 개체성과 배분성을 나타내는 후자의 경우에 ‘-들’을 사용한다. 셋째, 사람 이외의 명사를 옮길 때 텍스트상에서 수량(단수/복수) 구분의 의미가 명확하면 수량 표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번역한다. 이 논문은 비교적 구체적인 영어 복수 표현의 번역 전략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지만, 한국어의 명사를 [+사람]과 [-사람]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한 전제가 다수 용례의 적격성 판단에 문제를 초래했으며, 각 전략에 대한 적용 환경이 명시적이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 이외의 명사 복수형에 적용한 개별성 개념은 이미 조숙희(2007)에 언급된 것으로 그 논의의 수준을 크게 넘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 논의인 위의 첫째 전략, 즉 ‘명사의 지시 대상이 사람인 경우 ‘-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고, 명사의 지시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라는 번역 전략 1(*ibid*, 18)은, 다음과 같은 예문 (2b)가 단수로 해석되는 자

료에 근거한 조의연(2012: 274-277)에 의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논의와는 달리 (2)에서 보듯이 복수표지 '-들'은 자유롭게 변이되지 않기 때문이다.

ST : The boys and I fanned out, looking for insect muchies.

(2a) 아이들과 나는 흩어져서 먹이가 될 만한 벌레를 찾았다. (유표 복수 표지 '-들' 형)

(2b) 아이와 나는 흩어져서 먹이가 될 만한 벌레를 찾았다. (무표형)

조의연(2012)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곽은주·진실로(2011)에서 제안된 번역 전략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논의인데, 번역 전략이 마땅히 '해당 원천텍스트의 언어 요소가 목표텍스트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목표텍스트 언어의 규범에 일치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번역 도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국부적 번역 전략 개념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의 주제인 복수 표현의 영-한 번역 전략을 한층 정밀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제안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조의연(2012: 278)의 다음과 같은 견해, 곧 "단수와 복수의 번역 전략은 목표언어의 규범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목표언어인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한 번역자들에게 단수와 복수 현상의 번역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번역 전략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논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숙련된 번역자에게는 단수와 복수의 번역 전략이 불필요할지 몰라도,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 영한 번역자들이 참고할 만한 복수의 번역규칙으로서의 번역 전략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현재 입장이다.⁴⁾

다음의 논의는 수량 표현의 번역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의 주제와 직

4) 자주 인용되는 사례이지만 이상섭(1998: 249)의 내용을 곱씹어본다면 복수의 영-한 번역규칙은 그 필요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어 구문을 영어 구문에 가깝게 가져가려는 시도가 생겼다. 예컨대 복수를 나타내는 조사 '-들'이 필수 성분이 아닌데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들'은 영어의 복수를 나타내는 굴절 형태 '-s'와 똑같은 것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근희(2005)와 김혜영(2009)에서 논의된 원문의 간섭과 번역투 문제를 생각해보더라도 우리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박은주·김세정(2011)은 목표언어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수량어 체계가 다르므로 수량 표현의 번역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만수(2010)에서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번역하면서 원전의 프로이센 마일을 영미식 마일이나 미터법의 킬로미터로 옮기는 것은 다른 문화와 다른 시대를 바라보는 온당한 시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제목에 있는 ‘수량 표현’이라는 어구와 달리 수량 표현의 번역 문제를 다룬 논의라기보다 수량 표현과 관련된 문화 번역의 문제를 다룬 논의의 성격이 짙다.

이상의 연구사를 정리해보면, 복수 명사의 영-한 번역 문제는 양쪽 언어에서 복수 범주를 결정하는 근본 기제의 확인에서부터, 복수 명사의 영-한 번역규칙 수립 및 실제 번역 자료에 의한 번역규칙의 검증에 이르기까지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영어와 한국어의 복수 범주 표시

3.1. 영어의 복수 범주 표시

영어의 복수 범주는 객관적 기준, 곧 대상-표지 대응원리에 의거해 표시된다. 즉, 다음의 (3)에서 보듯이 대상 명사가 지시하는 사물이 하나이면 수 범주에 관하여 무표이고, 둘 이상이면 유표로서 복수표지({-s})를 배당받는다. 물론 이때 복수표지를 배당받는 명사는 일반적으로 셀 수 있는 가산명사여야 한다.

(3a) one book, two books

(3b) air

(3c) *two waters/ some water (물줄기의 뜻은 아님)⁵⁾

이상의 수 범주 표시는 셀 수 있는 사물의 수효라는 고정된 기준의 적용에 따라 표현되므로 외부 세계에서 문법적 적격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5) 앞으로 나오는 별표(*)는 문법적으로 부적격한 단어나 문장을 가리킨다.

문법 절차라고 할 수 있다.

3.2. 한국어의 복수 범주 표시

한국어의 복수 범주는 두 가지 유형으로 표시된다. 다음의 용례에서 보듯이 하나는 복수표지가 없는 무표형 복수이고 다른 하나는 복수표지가 있는 유표형 복수이다.

(4a) 오다가 가게에 들어서 사과를 사 왔다. (여러 개를 사 왔을 때) : 무표형

(4b) 오다가 길에서 사람들과 연달아 어깨를 부딪혔다. : 유표형

위의 (4b)와 같은 복수 표시는 앞서 본 영어의 유형과 다르지 않은 보편적 방식으로 보아 무방하다. 그런데 다음의 용례에서 보듯이 이와는 사뭇 다르게 보이는 복수 표시 유형이 있다. 우리는 관례에 따라 위의 (4b)와 같은 유형을 직접복수라 하고 아래 (5)를 간접복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5a)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어서들 오너라.

(5b) 왜들 그러니.

(5c) 까불지 마라들.

위의 용례 (5)가 영어의 복수 표현이나 한국어의 직접복수 표현 (4b)와 다른 것은 복수표지 ‘-들’이 명사(체언)가 아닌 다른 형태부류에 첨가되고, 심지어 종결어미 다음에도 첨가되어 대상-표지 대응원리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어 복수 범주 표시의 한 특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3.3. 복수 범주의 영-한 번역

앞서 언급한 대로 영어와 한국어의 복수 범주 표시는 그 기본 원리가 다르며, 따라서 양쪽 언어를 넘나드는 번역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즉, 복수 범주를 표시하는 근본 원리가 동일하다면, 번역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계적인 변환이 가능하겠지만 우리의 경우처럼 근본 원리가 상

이한 두 언어 사이의 번역이라면 기계적인 변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다음과 같은 예문에 대한 관찰에 의거하여 표면 층위에서 잠정적으로 복수 범주의 영-한 번역 방안을 기술해 보자.

(6a) *three books*

(6b) 세 권의 책, 책 세 권, *세 책들

위 예문 (6)의 짝을 보면, 영어 (6a)에서는 복수를 표시하는 수량사와 복수표지('-s')가 서로 대응되어 있지만, 한국어 (6b)에서는 복수를 표시하는 수량사(관형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명사 '책'에 복수표지가 붙지 않고 '권'이라는 단위명사(분류사)가 나타나 있다.⁶⁾ 나아가 복수표지 '-들'이 명사에 붙은 어구('세 책들')는 전형적인 비문이 된다. 이어서 다음 두 예문을 보자.

(7a)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7b) 고려 말에 대포가 들어왔다.

위 (7a)에서 적어도 '별'은 내용상 복수로 짐작되고, (7b)의 '대포'도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사실상 마찬가지로 짐작할 수 있다. 밤하늘에 별이 달랑 하나만 떠 있는 광경이나, 대포 한 문만이 들어오는 상황이란 범상한 논리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위의 한국어 예문에서는 복수표지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러한 관찰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복수 표현의 영-한 번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식 수준의 번역규칙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8) 영어 원문의 복수명사는 한국어 번역문에서 무표형으로 반영되는데 (즉, 복수표지가 사라지는데), 이때 단위명사가 해당 명사 앞뒤에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마쓰모토 아이린 외(1997: 139-141)에서는 영

6) '깨, 손, 모숨, 죽, 마리, 벌' 등의 단위명사가 발달한 것은 한국어 문법의 주요한 특징이다.

어의 복수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기법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한 바 있다.

- (9a) 문맥상 굳이 복수임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단수로 옮긴다.
- (9b) 해당 복수가 대표복수로 사용되었다면 그 종류 전체를 가리키도록 옮긴다.
- (9c) 명사를 겹쳐서 복수를 나타낸다.
- (9d) 단위명사(분류사)를 사용한다.
- (9e) 수를 구분하는 어구를 덧붙인다.
- (9f) 명사에 복수표지 ‘-들’을 덧붙인다.

위의 번역 기법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9a, 9d)는 이미 (8)에 언급된 내용이므로 더 이상의 설명이 불필요하다. 다음 (9b)는 예컨대 ‘Dogs are faithful.’ 과 같은 영어 원문을 ‘개라는 동물은 충직하다.’처럼 옮기는 것으로, 원리와 규칙의 문제라기보다 표현 기교의 문제이다. 물론 이런 경우의 명사는 대체로 총칭어(generic term)이므로 문맥에 따라 적격성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대개의 경우 그냥 ‘개는 충직하다.’처럼 옮겨도 큰 오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9c)는 이른바 첩어를 사용하는 기법인데, 첩어란 말 그대로 명사를 겹친 것이므로 그 자체가 복수 표현이 된다. 역시 표현 기교의 문제로 생각된다. (9e)는 예컨대 ‘경찰은 복수의 범인을 이 사건의 용의자로 전국에 수배했다.’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구를 덧붙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9f)는 복수표지 ‘-들’을 명사에 접미하는 방법이다. 이상의 번역 기법을 요약해보면, (9a)에서 (9e)까지는 복수표지를 덧붙이지 않고 (9f)는 복수표지를 덧붙이는 것으로 대별하여 정리할 수 있다. 다시 조금 더 압축해보면, 무표형으로 번역하라는 (9a)부터 (9e)까지 중에서 (9b, 9c, 9e)는 무표형을 보완하는 어구를 덧붙이는 표현 기교를 도입한 절차이고 (9a)와 (9d)는 한국어의 복수 범주 표시 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표현 기교의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는 위 (8)과 (9) 등과 같은 영-한 번역규칙(기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한 가지를 제기할 수 있다.

영어 원문의 복수를 한국어에서 유표형으로 번역할 때, 다시 말해 한국어에서 복수표지 ‘-들’을 접미할 때, 여기에 적용되는 규칙은 없는가? 한국어 복수표지 ‘-들’의 접미 규칙을 숙련된 번역자의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복수 표현의 영-한 번역규칙을 찾는 우리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예문을 만나면 우리는 위에서 제안된 번역규칙을 좀더 정밀화할 필요를 절감하게 된다.

(10a) They walked between the houses.

(10b) 그 사람들은 가옥들 사이(*가옥 사이)로 걸어갔다.

(11) 별들(*별)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

(12) 영이는 손가락에 줄줄이 반지를 끼고 있었다. (열 손가락에 반지를 낀 상황)

(13a) 숲에 나무가 많다.

(13b) 숲에 나무들이 많다.

(14a) *밀림에는 맹수가 어슬렁거린다. (실제 여러 마리가 돌아다닐 때)

(14b) 밀림에는 맹수들이 어슬렁거린다.

위의 예문 (10b)에서는 문맥의 의미로 볼 때 반드시 복수표지를 붙여야 한다. 만일 복수표지가 없다면 ‘가옥’의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비논리적인 상황이 발생하며, 따라서 이럴 경우라면 논리적 비문으로 불려야 할 것이다. 예문 (11)에서는 복수표지가 없으면 별 하나가 화자에게 소곤대는 매우 어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문맥으로 보면 지금의 분위기는 상당히 어수선하고 요란하기 때문이다. 예문 (12)에서는 사물(‘반지’)에 복수표지가 붙지 않고 ‘줄줄이’라는 부사가 도입되어 사물의 복수성을 손색없이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13a)와 (13b) 및 (14a)와 (14b)에서는 복수표지의 유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장의 적격성 판단이 영향을 크게 받는다. 즉, 복수표지가 있는 (13b)는 단순히 나무가 많은 것이 아니라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여러 종류의 나무가 많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실제로 여러 마리의 맹수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상황이라면 (14a)는 비문법적이거나 매우 어색한 문장으로 느껴진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위의 (8)과 (9)에서 제안된 영어 복수의 한국어 번역규칙이 이론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실제 번역 현장에서 적용되기에 적잖은 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영어와 한국어의 복수 범주 표시 방법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영-한

복수 번역규칙을 제안하여, 실제 영-한 번역 현장에서 만나는 복수 문제의 번역 사례에 대한 해결책 수립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4. 복수 범주의 대조문법적 고찰

우리는 제3장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복수 범주 표시 방식의 차이를 간략하게 개괄하면서, 영-한 번역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몇 가지 문제점을 미리 점검해 보았다. 복수 범주에 관한 영어와 한국어의 대조문법적 연구는 영어 복수 표현의 한국어 번역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앞서 3.1절에서 보았듯이 영어의 복수 범주 표시는 비교적 분명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왔던 한국어의 복수 표시 원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어 복수 표시 문제의 쟁점에 대한 논의로 불러도 좋을 것인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

앞서 3.2절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어의 복수 범주 표시는 무표형 직접복수와 간접복수의 존재 때문에 영어의 복수 범주 표시 방식과 구분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론적 쟁점을 야기한다.

- (15a) 한국어에서 복수 범주 표시는 임의적인가?
- (15b) 직접복수와 간접복수에 나타나는 복수표지 ‘-들’은 동일한 것인가?
- (15c) 직접복수와 간접복수의 기능은 무엇인가?

(15a)는 한국어의 복수 표시에 무표형과 유표형이 공존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명제이고, (15b)는 유표형 직접복수와 간접복수에 나타나는 표지 ‘-들’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가리려는 ‘-들’의 본질 탐색에서 비롯된 명제이며, (15c)는 양자가 같다면 그 기능은 무엇이고 다르다면 양자의 기능은 각각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는 기능 규명에서 비롯된 명제이다.

우리는 임흥빈(2000)에 의지하여 한국어의 직접복수와 간접복수에 나타난 표지 ‘-들’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이며, 그 기능은 ‘복수의 사건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대상(사물)에 복수표지를

붙이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 복수 표시의 성격은 사건복수가 된다.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어의 복수 범주 표시는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성의 발현이라는 일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결정되는 규칙적 문법 절차가 된다. 논의 전개에 편의상 임흥빈(2000)의 주된 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에서 복수 사건은 개체화라는 인식 절차(복수의 인지행위)를 거쳐 복수표지를 배당받으며, 이를 통해 언어적으로 복수로 표시된다. 개체화가 복수를 표시한다는 주장은 역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일단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 둘 이상이 되어야 개체화가 가능하고 또한 집단을 개체로 분리한다는 자체가 복수의 인지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인식의 방향만 조금 바꾼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하다.

간접복수의 ‘-들’도 개체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직접복수의 ‘-들’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따라서 간접복수의 ‘-들’도 다른 성분이 아닌 바로 그것이 접미된 성분의 복수를 유표적으로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문체 성분의 의미가 복수적인 사건과 개별적으로 관련된다는 뜻이다. 이로써 앞서 제기한 세 가지 질문(15a, b, c)에 대한 답변이 마련되었다. 한편 지금까지 제기된 이론은 주어의 복수여서 다른 성분에 ‘-들’이 접미된다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들’이 접미되어 해당 성분이 복수의 사건과 관련되고, 그에 따라 주어의 복수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논리적 이해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셈이다.

(16a) 어서들 오십시오.

(16b) 어서들 이쪽으로들 오십시오.

(17) 남편이 아이들을 예뻐들 한다.

(18) 나는 동생이 몹시 성이 났다고들 말했다.

(19) 몹시 취했다들.

위 (16a)에서는 부사 ‘어서’가 복수화한 것이므로 상대방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어서 오라’는 의미이다. (16b)에서는 부사 ‘어서’와 부사구 ‘이쪽으로’가 모두 복수화했는데, 만일 간접복수가 주어의 복수성을 표시한다면 구태여 이중으로 복수표지를 결합시킬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⁷⁾ 예문 (17)은 주어의 복수성이 다른 성분에 접미된 복수표지 ‘-들’에 의해 표시되는 것이 간접복수의

본질이라고 하는 기존 견해에 대한 반례가 된다. 이 예문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예뻐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따라서 아이를 예뻐하는 사건이 복수적이라는 것이다. 예문 (18)은 인용절(‘동생이 몹시 성이 났다’)이 복수화한 것이며, 예문 (19)는 문장 전체(‘몹시 취했다’)가 복수화한 것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한국어 복수 표시의 이러한 발현 양상은 대상 사물의 수효에 따라 복수표지가 부여되는 영어의 대상-표지 대응원리와 전혀 다른 것이다. (대상복수와 사건복수의 차이는 영어와 한국어의 보다 큰 원리적 차이, 곧 명사중심성과 동사중심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천착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다음 절에서는 영어 복수 표현의 한국어 번역규칙을 제안하고 이를 다듬어볼 것이다.

5. 영어 복수 번역규칙의 정밀화

우리는 앞선 논의에 기반하여 일단 다음과 같은 복수 범주의 영-한 번역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

(20) 원문의 복수 명사가 사건복수의 성격을 띠면 복수표지 ‘-들’을 붙인다.

위 규칙 (20)은 해당 복수명사가 사건복수인지 아닌지를 번역자가 언어학자적 안목으로 해석해야만 실제 번역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규칙 (20)은 번역 현장에서 번역자가 복잡한 해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서 임흥빈(2000)의 논의에 의지해서 한국어에서 복수 사건이 개체화라는 인식 절차(복수의 인지행위)를 거쳤을 때 복수표지를 배당받는다고 설명했다. 개체화란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낱말의 개체로 쪼개는 작업이며,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복수의 인지행위가 필요하다.⁸⁾ 그렇다면 위의 규칙 (20)은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7) 예문 (16b)의 문법성 판단 여부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필자는 한국어에서 충분히 가능한 발화로 본다.

8) 복수의 사건이나 복수의 인지행위는 사실상 동의어이다. 복수의 사건을 받아들여 받

(21) 원문의 복수 명사에서 개체화의 특성이 발견되면 복수표지 ‘-들’을 붙인다.

위의 규칙 (21)은 (20)의 사건복수 개념보다 한결 구체적이지만 여전히 번역자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추상적이고 원리적이다. 실제 실무번역 현장에서는 해당 복수명사의 어떤 성질이 개체화를 유발하는지를 밝히는 보완 규칙이 오히려 유효할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2a) 도서관에 책이 많다.

(22b) 도서관에 책들이 많다.

개체화와 관련하여 예문 (22a)와 (22b)는 좋은 비교가 된다. 설령 외부 세계의 객관적인 진리값(책의 복수성 여부)으로는 양자가 동일할 수 있지만, 각각의 진술을 수행하는 화자의 인식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전자는 단순히 소장 중인 장서의 수효가 많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 비해, 후자는 그냥 장서가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 여러 가지 판형 등의 책이 많다는 느낌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말하자면 소장 중인 장서 전체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개체화함으로써 복수를 표시하고, 복수를 표시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복수표지 ‘-들’의 접미로 실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개체화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주어진 상황을 대하는 화자의 인지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는 의미이고, 이는 다시 복수 사건으로 해석될 여지를 제공해 준다. 이처럼 (22b)와 같은 직접복수 개념도 어떤 사물에 대한 화자의 복수적 인지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해당 사물 하나하나가 화자에게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역으로 말하면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복수적 인지행위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복수표지 ‘-들’이 덧붙는 접미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⁹⁾

화하려면 복수의 인지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복수의 사건 하나하나를 인지하려면 각각의 사건을 향해 사건 수효만큼의 시선이 가야 한다는 뜻이다.
9) 앞으로 나오는 예문 (23), (24), (25)는 임홍빈(2000)에서 가져온 것이다.

- (23a) *밥사발 위에 먼지들이 쌓였다.
- (23b) 그곳은 사방에 먼지들이 많다.

위의 두 예문에서 (23a)는 먼지가 쌓인 공간이 ‘밥사발’이라는 좁은 영역이다 보니 먼지의 개체들 하나하나가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복수의 인지행위가 필요한 복수적 사건으로 인식될 여지가 없다. 이에 비해 (23b)에서는 ‘사방’이라는 어구의 도입으로 인해 화자의 관찰 공간이 비교적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도처에 흩어져 있는 먼지의 개체들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복수의 인지행위가 필요하고, 따라서 각처에 산재한 먼지의 상태 하나하나가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어 복수표지 ‘-들’이 접미될 수 있다. (셀 수 없는 물질명사에도 복수표지가 붙는 것도 영어의 복수 표현과 구분되는 한국어의 특징이다.)

여기서 한국어에서 개체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특성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질성’이다. 한국어에서는 이처럼 물질명사라도 부분과 부분이 성질이나 종류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위치나 형상 혹은 화자나 관련자의 인식과 관련하여 이질성이 개입될 여지가 커질수록 개체성을 띠기 쉽다. “개체성을 띠기 쉽다”는 진술은 복수 사건이 되어 복수표지를 할당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4a) *티끌들 모아 태산.
- (24b) 티끌 모아 태산.
- (25a) *보온병에 물들을 채워 넣었다.
- (25b) 비 온 뒤라 마당 여기저기에 물들이 있다.

위의 예문쌍을 잘 살펴보면, 이질성이 개입되기 어려운 상황인 (24a)와 (25a)에서 문법적인 이상이 발생했다. 우선 (24a)에 있는 명사 ‘티끌’은 아주 작은 물질이라 각기 다른 모양이나 크기 등을 상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복수의 인지행위가 불필요(혹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들’의 접미로 (24a)가 비문이 된 반면, 무표인 (24b)가 적격 문장이 된 이유이다. (25a)에서도 보온병에 채워 넣는 물은 이질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물의 개체화도 불가능하여 복수적 인지행위도 불필요하다. 이것이 복수표지 ‘-들’이 접미되어 비문이 된 이유이다. 이에 비해 (25b)에서 마당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은 그 크기가 깊이, 모양 등

이 이질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복수의 인지행위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복수표지 ‘-들’이 자연스럽게 접미되었다. 여기서 언급된 ‘이질성’의 개념은 번역자가 복잡한 해석을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손쉽게 간취해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에서 영어 복수의 번역규칙으로 제안한 (2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22) 원문의 복수 명사에서 이질성이 발견되면 복수표지 ‘-들’을 붙인다.

위의 규칙 (22)에 보이는 ‘이질성’은 화자(번역자)의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선 규칙에서 언급된 (20)의 ‘사건성’이나 (22)의 ‘개체화’에 비해 한결 선명한 개념이다. 더욱이 우리는 ‘이질성’의 파악을 용이하게 해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서를 제시할 수 있다. 앞서 복수규칙의 정밀화를 위해 언급했던 예문을 다시 가져와 본다.

(10a) They walked between the houses.

(10b) 그 사람들은 가옥들 사이(*가옥 사이)로 걸어갔다.

(11) 별들(*별)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

(12) 영이는 손가락에 줄줄이 반지를 끼고 있었다. (열 손가락에 반지를 낀 상황)

(13a) 숲에 나무가 많다.

(13b) 숲에 나무들이 많다.

(14a) *밀림에는 맹수가 어슬렁거린다. (실제 여러 마리가 돌아다닐 때)

(14b) 밀림에는 맹수들이 어슬렁거린다.

우선 (13b)의 복수표지 ‘-들’은 이질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수종(樹種)과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가진 나무의 군상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14b)의 복수표지 ‘-들’은 여러 마리가 움직일 때 이들 각각의 역동적인 모습은 당연히 이질적일 것이며, 따라서 복수의 인지행위가 필요하다. (앞서 조숙희 (2007: 146-7)에서 영어 원문의 유정명사가 개체성에 초점이 맞춰질 때 복수표

지를 받는다고 한 것도 사실상 우리의 설명과 동일한 논리이다.) 살아 있는 생명체(유정명사)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므로 각 개체가 이질성을 띠는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복수의 인지행위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원문 (10a)를 옮긴 (10b)에 나타나는 복수표지 ‘-들’은 앞서 논리적 복수라고 불렀던 것인데, 사람들이 걸어가는 양옆의 건물들에 최소한 두 번의 시선이 가게 되므로 개체화를 유발하여 복수표지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예문 (11)의 복수표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우리는 (20), (21), (22)를 수정한 다음과 같은 번역규칙을 제안할 수 있다.

- (23a) 원문의 복수명사가 논리적으로 복수 범주를 요구하면 복수표지 ‘-들’을 붙인다. 이때 원문의 복수명사는 대체로 개체화 작용의 대상이 된다.
- (23b) 원문의 복수명사에서 이질성이 발견되면 복수표지 ‘-들’을 붙인다. 이때 원문의 복수명사는 대체로 동작성을 띠는 유정명사이다.

이제 번역자는 영어 원문에 복수명사가 있을 때 위의 두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응하는 한국어 명사에 복수표지 ‘-들’을 붙여서 옮기고, 나머지는 무표형으로 옮기면 된다. 원문의 복수명사는 한국어 번역문에서 복수표지 ‘-들’을 접미하는 유표형으로 나타나거나 그냥 무표형으로 나타나는 배타적(상보적) 분포를 보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원문의 복수명사를 무표형으로 옮기는 번역규칙은 위 (23a, 23b)의 존재로 인해 불필요하게 된 셈인데, 그렇더라도 무표형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도 우리의 논의에 유익하다고 믿는다. 유표형으로 옮기는 위의 번역규칙 (23a, 23b)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무표형 복수의 용례를 살펴보자.

- (24a)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24b) 고려 말에 대포가 들어왔다.
- (24c) 도서관에 책이 많다.

위 (24)의 용례를 보면, 문맥상 ‘별’과 ‘대포’ 및 ‘책’이 실제 세계에서는 복

수이지만 언어적으로는 아무런 표지가 없는 무표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명사를 무표형으로 옮기는 다음의 번역규칙을 제안할 수 있다.

- (25) 원문의 복수명사가 단순히 수량 개념만을 표시할 때 무표형으로 번역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원문을 만나게 되면 (26b)와 같이 무표형으로 옮겨서는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 (26a) ~les doigts garnis de bagues ~(프랑스어)
 (26b) 반지를 낀 손가락 (?)
 (26c) 반지를 낀 손가락들 (?)
 (26d) 줄줄이 반지를 낀 손가락

만일 (26b)처럼 표현하면 보통 사람들처럼 손가락에 반지 하나를 낀 것으로 이해되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원문에서 제시된 사정은 이와 다르다. 원문에서는 이 인물의 열 손가락에 모두 반지를 낀 조금은 특이한 상황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열 손가락 모두에 주목한 상황, 즉 개체화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26c)처럼 복수표지 ‘-들’을 붙일 수도 없다는 데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번역이 (26d)처럼 부사의 도움을 받는 표현 방법이다.¹⁰⁾ 이러한 번역 양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유효하다.

- (27) A lion of normal egoistic tendencies was captured by a party of hunters and bound with heavy ropes. A little mouse was attracted by the roars of the outraged lion.

10) 원문 복수명사의 번역에 부사를 활용하는 것도 원리적으로는 복수 사건(개체화, 이질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 생각된다. 의성어와 의태어란 동작성을 표현하는 극단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9c)에 언급되었던 ‘침어’도 사실상 부사를 활용한 번역에 속한다. 예컨대 동요 ‘송이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에 보이는 ‘송이송이’도 침어 구성으로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훑날리는 복수의 사건을 표현한다.

(28) A hungry fox tried to reach some clusters of grapes which he saw hanging from a vine.

위의 예문을 한국어로 옮길 때도 부사를 활용하면 한층 자연스럽게 원문의 분위기를 담아낼 수 있다. 예컨대 (27)에서는 ‘두꺼운 밧줄로 꽂꽂 (뭉였다)’ 정도의 표현이 가능하고, (28)에서는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를)’ 정도의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서 이들 어휘를 조금 자세히 분류하면 ‘꽂꽂’과 ‘주렁주렁’은 의미어로 부사의 하위 영역에 자리잡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무표형 번역규칙 (25)를 다음과 같이 보완할 수 있다.

(25a) 원문의 복수명사는 단순히 수량 개념만을 표시할 때 무표형으로 번역한다. 이때 원문에 없는 수량 관련 표현을 동반하기도 하고 수량을 특정화할 경우에는 단위명사를 동반하기도 한다.¹¹⁾

(25b) 개체화의 대상이 되는 원문의 무정([inanimate] 복수명사는 부사를 동반하는 무표형으로 번역한다.

결과적으로 영어 원문의 복수명사를 한국어로 옮기는 번역규칙은 (23a, 23b) 혹은 (25a, 25b) 둘 중의 하나가 된다. 두 가지 규칙이 상보적 분포를 이루기 때문이다.

6. 용례 검토 - 복수 번역규칙의 효용성 확인과 보완

이제 머리말에서 목표로 설정했던 두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해결되었다. 남은 하나는 우리가 제안한 번역규칙의 효용성을 실제 번역 자료에서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번역 소설 한 권(『한니발 라이징』¹²⁾)

11) 단위명사의 출현이 번역규칙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아닐 것이다. 조의연(2012)의 지적대로 한국어의 수량 표현에 단위명사가 사용되는 것은 목표언어의 규범을 따르는 표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예문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원문에 없는 수량 관련 표현, 예컨대 ‘수많은, 술한, 여러’ 등이 동반되는 무표형의 출현은 번역규칙이 감당할 몫으로 생각된다.

을 선택하여 복수명사가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조사해본다. 이 번역 소설은 독서시장에서 독자들의 인정을 받은 숙련된 번역가의 작품으로 기술번역학 자료로서의 일정한 가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어 원문에서 복수표지가 있는 어구가 포함된 문장 전체를 추출한 다음에 여기에 상응하는 한국어 번역문을 찾아서 목록화하고, 추출된 자료는 번역된 결과에 따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해 본다. 영어 원문에 나온 복수명사 863개 가운데 유정명사는 154개이고 무정명사는 709개였는데, 이들 복수명사가 각각 유표형과 무표형으로 번역된 양상은 다음과 같았다.

	원문 유정명사	원문 무정명사
번역문 무표형 빈도수	55건	661건
번역문 유표형 빈도수	99건	48건
총계	154건	709건

위의 조사 결과는 원문의 유정명사가 번역문에서 복수표지 ‘-들’을 갖는 비율이 무정명사에 비해 월등히 높음(64.3% : 6.8%)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정명사가 복수표지 ‘-들’의 접미에 민감하다는 뜻으로 앞에서 제안한 번역규칙 (23a)와 (23b)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¹²⁾

먼저 유정명사의 번역부터 살펴보자. 위에서 제시했듯이 원문의 유정명사는 유표형 복수가 무표형 복수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유표형과 무표형의 용례를 아래에 보이기로 한다.

12) 자세한 서지 사항은 참고문헌에 제시했다. 이 책은 모두 60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1장부터 30장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조사 항목이 900여 개에 이르므로 표본으로서의 크기와 신뢰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3) 다음 용례는 이 점에서 흥미롭다. 원문의 ‘enemy’s heads’를 ‘적들의 잘린 머리’로 번역했는데, 이는 단수 ‘enemy’를 유표형 ‘적들’로, 복수 ‘heads’를 무표형 ‘머리’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26a) Swallows started from the towers at the shot.

(26b) 탕 소리와 함께 탑 위에 앉아 있던 제비들이 날아올랐다.(31)¹⁴⁾

(27a) Lady Muraski organized lawn suppers where they could view the harvest moon and hear the fall insects.

(27b) 레이디 무라사키는 가을벌레의 울음소리를 만끽하며 중추仲秋의 만월을 음미할 수 있도록 정원에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136)

(28a) Four draft horses, steaming after the rain, were hitched to a defunct German tank protruding from the foyer.

(28b) 네 마리의 짐말이 비를 맞아 온몸에서 김을 내뿜으며 중앙 홀에 박혀 있는 독일 탱크의 잔해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102)

(29a) ~ that sent the wading birds flapping away.

(29b) 화려한 물줄기와 함께 새의 무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다. (46)

위의 용례 중에서 (26)의 ‘swallows’는 문맥상 총소리에 놀라 갑자기 하늘로 비상하는 제비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날아오르는 제비들의 높이와 모양, 날갯짓 등은 모두 천차만별로 다르며, 따라서 복수의 인지행위가 필요한 전형적인 경우로 복수표지의 접미는 번역규칙 (23b)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27)의 ‘fall insects’는 가을벌레 각각의 동작에 대한 개별적 혹은 복수의 인지행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유정명사인데도 그냥 무표형 복수로 표현되었다.¹⁵⁾ 한편 원문에 구체적인 수량 표현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번역문에서도 단위명사를 동반하는 무표형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28a)의 ‘horses’는 유정명사이지만 (28b)에서 수사와 단위명사를 동반하는 무표형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29)에서는 유정명사 ‘birds’를 집합명사를

14) 예문 뒤 괄호 안의 숫자는 번역서의 쪽수 표시이다.

15)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대로 ‘가을벌레’도 소리가 제 각각임을 나타내거나 그를 통해 종류가 제 각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가을벌레들’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문맥은 ‘소리가 제 각각임을 나타내거나 종류가 제 각각임을 나타낼’ 필요가 굳이 없는 경우이다.

16) 이는 무정명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원문에 없는 수량 표현을 동반하

사용해서 무표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무표형 복수의 출현 양상은 무표형을 다룬 복수 번역규칙 (25a)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정명사의 번역을 살펴보자. 부정명사는 앞서 언급했듯이 복수성의 수량 개념만을 표현할 때 대체로 무표형으로 번역된다.¹⁷⁾ 여기서는 유표형의 용례를 위주로 논의하기로 한다.

(30a) Hannibal among the corpses, how much later he did not know, snow drifting down to dust his mother's eyelashes and her hair.

(30b) 한니발은 사방에 죽어 넘어진 시체들로 둘러싸인 채 언제까지고, 언제까지고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의 속눈썹과 머리카락 위에 눈송이가 사뭇히 내려앉았다.(60)

(30a)의 ‘corpses’는 ‘시체’이므로 부정명사이지만 ‘사방에’와 ‘둘러싸인’의 존재로 인해 복수표지를 부여받는다. 만일 단수로 표현되면 (10b)에서 *‘가옥 사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논리적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¹⁸⁾ 이때 복수표지의 접미는 앞서 제안했던 복수 번역규칙 (23a)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용례는 의미 해석상의 오류를 유발하는 것으로 주의를 요한다.

(31a) First Monitor Petrov, newly appointed, and Second Monitor in jodhpurs and boots walked among the tables to be sure everyone was singing.

고 무표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원문의 ‘eyebrows’나 ‘generations’ 등이 각각 ‘양쪽 눈썹’이나 ‘몇 세대’ 등으로 번역되는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어 번역문에서 수량 표현 어구는 복수표지 ‘-들’과 배타적 분포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17) 위의 표에 제시했듯이 93.2%의 비율이다. 일반적인 번역 양상이므로 따로 용례를 제시하지 않는다.

18) ‘시체가 사방에 널려 있다.’ 혹은 ‘가게가 줄지어 서 있다.’ 등의 문장을 보면, (30b)에서도 ‘시체’가 무표형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익명의 심사자 지적). 위의 두 문장은 유표형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상황을 하나의 시선으로 보는 경우에 무표형이 보다 자연스럽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가게’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면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처럼 유표형으로 나타난다. (30b)에서는 ‘사방에’와 ‘둘러싸인’이 모두 ‘시체’에 걸린다. 핵심은 ‘사방에 (죽어 넘어진) 시체로 둘러싸인 (채)’의 비문법성이다. 본문의 예문 (23b)에 대한 설명이 참고가 된다.

- (31b) 얼마 전 새로 임명된 일등 감독위원 페트로프와 승마바지에 부츠를 신은 이등 감독위원이 탁자 사이를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지 않는 아이가 있는지 감시했다.(82)

밑줄 그은 어구는 ‘탁자들 사이’ 혹은 ‘탁자와 탁자 사이’ 정도로 표현되어야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표형 복수의 용법으로 보기에는 목표언어의 규범상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상의 용례는 유표형을 다룬 복수 번역규칙(23a)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용례는 동일한 무정명사가 인접한 문맥에서 무표형과 유표형으로 달리 번역되어 흥미롭다.

- (32a) Each child had a footlocker and on the wall above each bed was a space to put drawings or, rarely, a family photograph. Here is a row of crude crayon drawings above the successive beds.
 (32b) 아이들은 저마다 작은 사물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머리맡에는 좋아하는 그림이나 아주 드물게 가족사진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한 줄로 늘어선 침대 머리맡에 크레용으로 그린 서툰 그림들이 세워져 있다.(91-92)

(32a)에는 동일한 무정명사 ‘drawings’가 두 번 나오는데, 번역문 (32b)에서는 각각 무표형과 유표형으로 달리 나타나고 있다. 무표형으로 표현된 전자는 관념 속의 대상인 반면, 유표형으로 표현된 후자는 실제 대상이다. 관념 속의 대상은 정적인 속성을 가지므로 개체화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복수의 인지행위도 불필요하다. 그러나 후자의 상황은 정확하게 묘사하려면 복수의 인지행위가 필요하므로 복수표지 ‘-들’이 접미된 것으로 이해된다.

무표형에 대해서도 약간의 언급이 필요하다.

- (33a) (~,) raindrops on their shoulders and their shoes.
 (33b) 두 사람의 어깨와 구두에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다.(176)

안경이나 가위처럼 실제로는 하나이지만 복수의 구성요소를 갖는 관계로 영어에서 복수 취급을 받는 명사는 한국어에서 무표형으로 번역된다. 위 (33)의 ‘어깨’와 ‘구두’가 그러한 용례이다.¹⁹⁾

제5장에서 제안한 복수 번역규칙들 중에서 (25b)를 보여주는 용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음의 용례를 살펴보자.

(34a) Still visible in the foundations of the lodge are the stones of an altar built in the Dark Ages, by a people who venerated the grass snake.

(34b) 건물 토대에는 중세시대에 풀뱀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세운 돌제단의 흔적이 아직도 간간이 남아 있었다.(21)

(35a) Drops of blood fell onto the shite silk of her kimono.

(35b) 그녀의 하얀 비단 기모노에 빨간 핏방울이 똑똑 떨어졌다.(119)

(34)에서는 ‘간간이’라는 부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단의 돌이 산재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35)에서는 역시 부사의 일종인 의태어 ‘똑똑’의 도움을 받아 빗방울이 미세한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복수적 사건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 두 상황은 모두 복수의 인지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로 복수표지 ‘-들’을 접미하는 대신 부사를 동반하는 무표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의 복수 번역규칙 (25b)의 효용성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이상의 용례 검토를 통해 우리가 제안했던 복수 번역규칙(23)과 (25)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는데, 다음의 용례는 이들 번역규칙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자료이다.

(36a) Generous in size and light, the bedroom had been prepared for Hannibal with hangings and posters to enliven the stone.

(36b) 한니발을 위해 준비한 넉넉하고 밝은 침실은 딱딱한 돌벽에 생기를 더하고자 온갖 장식품과 포스터로 꾸며져 있었다. (105)

(37a) He flings the skin to them and they fall on it like dogs.

(37b) 그가 가죽을 던지자 사람들이 개처럼 달려든다. (93)

19) 그렇지만 복수 번역규칙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원문의 복수표지가 단순히 수량 개념만을 표시하는 경우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번역규칙 (26a)로 충분하다.

(38a) They had picked up the French when the Totenkopfs refitted near Marseilles, and liked to insult each other with it in the tight moments before action.

(38b) 그들은 행동에 돌입하기 전 긴장이 될 때마다 토텐코프가 마르세유 근처에 주둔할 무렵 배운 짧은 프랑스어로,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곤 했다. (74)

(39a) His mate swooped down beside him, poked him with her beak, waddled around him with urgent honks.

(39b) 짝 잃은 고니가 옆에 내려앉아 부리로 짝을 건드려보더니 다급하게 울며 주위를 빙빙 돌았다. (35)

(36)에서는 원문의 두 명사가 지닌 복수성을 번역문에서 관형사 ‘온갖’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37)에서는 ‘무리’를 뜻하는 명사 ‘떼’를 번역 대상 명사에 덧붙인 합성명사를 만들어서 복수 범주를 표현하고 있다.²⁰⁾ (38)에서는 보조사 ‘마다’를 활용하여 복수 명사를 번역했는데, 이 보조사는 개체화를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39)의 경우를 보면, 원문의 복수 명사를 문장으로 풀어서 번역했다.²¹⁾

위의 용례들 가운데 (39)는 일종의 의역으로 번역규칙에서 논의할 성질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36)은 무표형을 다룬 복수 번역규칙 (25a)의 ‘수량 관련 표현’의 범위에 내부적으로 ‘관형사’를 추가하면 될 것이다. (37)과 (38)은 앞서 제안한 복수 번역규칙에서 누락되었던 내용으로 규칙의 보완이 요구된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들 번역은 무표형과 함께 나타나므로, 관련된 규칙도 무표형을 다룬 복수 번역규칙 (25)의 하위 범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25c) 원문의 복수명사는 개체들의 집합을 표시할 때 [집단성]의 뜻을 갖는 명사와 결합한 합성명사로 번역하거나 개체화를 유발하는 보조사 ‘-마다’를 접미하여 번역할 수 있다.

20) 이러한 번역 방식이 비단 움직일 수 있는 유정명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의 ‘reeds’를 ‘갈대밭’(133)으로 옮긴 용례도 이와 마찬가지로 번역 방식이다.

21) 명사 ‘honk’가 의성어에서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끼룩끼룩하면서’ 정도로 옮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7. 맺음말

본 연구는 영어 원문의 복수 명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로서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하나는 영어와 한국어에서 복수를 표시하는 개괄적 원리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복수 번역규칙의 제안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학적 분석 결과가 실제 영-한 번역의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자료 기반의 검증으로 우리가 제안한 복수 번역규칙의 유효성 여부를 실제 번역에서 확인하고 보완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논의 절차를 거쳐 우리가 수립하고 보완한 복수 번역규칙은 다음과 같다.

- (R1a) 원문의 복수명사가 논리적으로 복수 범주를 요구하면 복수표지 ‘-들’을 붙인다. 이때 원문의 복수명사는 대체로 개체화 작용의 대상이 된다.
- (R1b) 원문의 복수명사에서 이질성이 발견되면 복수표지 ‘-들’을 붙인다. 이때 원문의 복수명사는 대체로 동작성을 띠는 유정명사이다.
- (R2a) 원문의 복수명사는 단순히 수량 개념만을 표시할 때 무표형으로 번역한다. 이때 원문에 없는 수량 관련 표현을 동반하기도 하고 수량을 특정화할 경우에는 단위명사를 동반하기도 한다.
- (R2b) 개체화의 대상이 되는 원문의 무정([inanimate] 복수명사는 부사를 동반하는 무표형으로 번역한다.
- (R2c) 원문의 복수명사는 개체들의 집합을 표시할 때 [집단성]의 뜻을 갖는 명사와 결합한 합성명사로 번역하거나 개체화를 유발하는 보조사 ‘-마다’를 접미하여 번역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복수 번역규칙 (R1)과 (R2)는 이론적으로 배타적 분포를 이룬다. 실제 번역 현장에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들 번역규칙은 물론 복수명사의 번역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겠지만, 대조언어학적 연구의 심화와 번역 경험의 축적을 통해 끊임없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번역의 모든 문제를 번역규칙의 문제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번

역자의 직관 내지 언어감각에만 의존하려는 입장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번역의 큰 틀을 잡아주는 것은 역시 이론이 담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수연 (1989)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곽은주 · 김세정 (2011) 「숫자 수량 표현의 영한 번역 문제」, 『번역학연구』 11(2): 7-31.
- 곽은주 · 진실로 (2009) 「언어 사용역을 고려한 영한 수량 표현 번역」, 『번역학연구』 10(1): 171-97.
- 곽은주 · 진실로 (2011) 「텍스트 차원에서의 복수 표현의 영한 번역전략」, 『번역학연구』 12(1): 7-34.
- 김만수 (2010) 「수량 표현과 문화의 이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1): 97-126.
- 김혜영 (2009) 「국어 번역 글쓰기의 연구」, 고려대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 마쓰모토 아스히로 · 아이린 (1997) 『영어 번역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90가지 핵심 포인트』, 서울: 창해.
- 백미현 (2002) 「한국어 복수 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 9(2): 59-78.
- 이근희 (2005), 『영한 번역에서의 ‘번역투’ 연구』, 세종대 영문과 박사학위 논문.
- 이남순 (1982) 「단수와 복수」, 『국어학』 11: 117-141.
- 이상섭 (1998) 「외국 참고서에서 보는 한국어에 대한 시각」, 『새국어생활』 8(1): 247-56.
- 임홍빈 (2000) 「복수 표지 ‘들’과 사건성」, 『애산학보』 24: 3-30.
- 전영철 (2004) 「한국어의 복수성과 총칭성/한정성」, 『언어와 정보』 8(2): 27-45.
- 조숙희 (2007) 「영한 번역에 나타난 영어 복수 명사의 변환 연구: 유정성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5(2): 137-53.
- 조의연 (2012) 「사람명사 복수표현의 영한 번역전략에 대한 비판적 소고」, 『번역학연구』 13(1): 267-81.
- Chung, Kook (1978) ‘On the Peculiarity of the Korean Plural Marker’, 『어학』

5: 93-105.

Kang, Beom Mo (1994) 'Plurality and Other Semantic Aspects of Common Noun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3(1): 1-24.

Song, Seok Jung (1975) 'Rare Plural Marking and Ubiquitous Plural Marker in Korean', *Linguistic Research* 11(1): 77-86.

<자료>

『한니발 라이징』, 박슬라 옮김, 창해, 2007. (*Hannibal Rising*, by Thomas Harris, Baltimore Press, 2006)

[Abstract]

**A General and Analytic Study on the Translation of
English Plural Expressions into Korean**

Kim, Jeong-Woo
(Kyungnam University)

In this paper which aims at discussing the translation of English plural nouns into Korean, we have emphasized two subjects: one is to present reasonable translation rules of English plurality into Korean with the aid of contrastive study of English and Korean; the other is to test and supplement the efficacy of the above translational rules with the analysis of parallel corpus collected in a novel.

Through the discussion the translation rules of English plural nouns into Korean presented here are as follows:

- (R1a) Plural nouns of English should be translated into Korean with suffix '*-deul*', if a plural category is logically required. In this case they are interpreted as sum of individual members.
- (R1b) Plural nouns of English are translated into Korean with suffix '*-deul*', if a heterogeneity is found in those nouns. In this case they are animate and active or dynamic.
- (R2a) Plural nouns of English are translated into Korean as unmarked forms (i. e. forms without suffix '*-deul*'), if they only represent plurality or numeral concept. In this case, numeral expressions absent in original English text or classifiers specifying quantity, might be introduced.
- (R2b) Plural inanimate nouns of English could be translated into Korean as unmarked forms with adverbs, if they are interpreted as sum of individual members.

(R2c) Plural inanimate nouns of English could be translated into Korean as compound nouns combined with nouns signifying collectiveness or declension forms combined with a particle ‘-mada’ adding individuality.

The above two rules (R1) and (R2) theoretically form a complementary or exclusive distribution. Yet they could be supplementarily utilized in real translation of English into Korean. The author hopes that these rules will be adjusted and readjusted towards better solutions to the issues in question.

▶ Key Words: plurality, translation rule, individuality, marked form of Korean plurality, unmarked form of Korean plurality, numeral expressions, parallel corpus, compound noun, a Korean particle ‘-mada’

김정우

경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kjwn@kyungnam.ac.kr

관심 분야: 번역이론, 번역사

논문투고일: 2013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2013년 9월 16일